

무엇임을 알수 없을 것이다。儒者들은 自家의 「道」 條를佛教로써融釋하여 본바이다。그러나 文長의嫌을알지못하거나 잊지他를知하랴 하는것이 筆者의 趣意를알지못하여 이에그치려하고 남어지는 다음 偶然치아니한생각이다。그리하여 大學의三綱 八 機會를기다리는바이다。

# 古木春

石顛沙門

春風은彼此가 어찌있을가 花枝스사로가 長短이不無하다일칼났다。우리애봄은늦재야 찾아하면 山이높고골이깊은 千章古木이 뜻치피 재되얏스죽 그애威이 悲喜交擊이 안이달수 업 재된다。漢城北面에 佛教專修學校 樹立된今日에 서 우리佛教全體로든지 學校來由를 對想하면 아부생각보다도 古木春이구나 開口안이치못하겠 다。우리佛教의現狀을 살필때에 어찌천耳食者는 在古의小乘敎가 漸漸히大乘敎가되야간다 하는소 때도 업지안락 무슨點을보고 그것게孟浪說을披 露할가 深山에孤守하였은 比丘僧가 春潮를말하 霧淪雲變한걸 同情同聲함에不過한것이다。좀깨矣 眼光으로 볼지이다。이러케濁浪이排空하고 魚 頭鬼面이 頭出頭沒하게된 僧侶의新劇 開幕을보 면서 拍手喝采曰大乘敎가法如是라한단말가。 近古에一例를들것다。葆堂이檀和尚이海印寺弘濟 庵齋室에있을때다。그이自言과갓치 逃禪一流가方 丈에地居함을말하 弘濟一衆도蕩々無碍로僧行이라 한다。爾時에 그것네願堂庵에서는 智異山玩禪法 師를 邀請하여華嚴山林을 進行하였고 또한모용 이極樂殿講堂에서는 履歷法會를한다하야 學人들 이紅袈白襦을설々이고 오락가락道場에형성드못하 다。葆堂和尚은늦진지장스고 뒷지지고 石橋春風 에 건일다가 石顛沙門을 撞著하였다。그때에石 顛은至今石顛이었다。그和尚이石顛을보고莞爾히一 笑하였다。그다음에 조흔말상으로가르되 요새이

에저편에서는 華嚴山林을안다지 또스님은履歷經典 을 가르친다하지 보다華嚴一乘은 꿈에도못보았 다。정말弘濟庵에서 華嚴山林을 잘안다엇더케 잘 하는가 첫재染淨이無碍하고 풀재飽眠이自由이고 셋재杏花天夕陽되면甘紅露에半醉하야 常墟美姬와 秋波가往來한다。其外에無限滋味가一口難說이다。 스님도華嚴經을안다하니말이지 得魚忘筌을못하면 文字것집싸기만 唯할려 어허너릴우승을 또우섯 다。또한石顛도우섯다。그웃슴에解脫門도 어들면 하였다。今日에朝鮮우리집家風은 보다弘濟菴그씨 보다 얼마나開放하였는가 참一乘華嚴의無障佛法 界를開發하였다한다。어대르장은가葆堂和尚이 華 嚴劇을喜觀치안이라고 然이나葆堂和尚그사람이 正 觀이라하면 釋尊과達摩와는 出世가잘못이며 渡 海는부상일고 일언語句는禪宗의本分語와도相似하 여진다。如此한羅盤針 엇기어런 風潮頭에 佛教 專修라는 名字는보아도古木春의感想이얼술가。

古木은부상일노 多風多雪을 겐대기어려워타어 던가지는鹿角이되였다。어던가지는暮烟으로化하였 다。입새는荒雨에석겨우수수더러질제 클이르든士 女의秋聲噴을일으키게된다。日暮西山에깃드림을차

밧음파서추듬으로서 흥흥한얼굴을 여  
리분압해 못내계됨을深謝하나다  
學 藝 部 白